

The Reunified Korea Economy

月
刊

統一經濟

1999. **3** 통권 제51호

現代經濟研究院

統一經濟

3
1999
제51호

편집자의 글

북한의 대남 자세 변화를 촉구하며3

포커스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 기회와 기대 • 정해구4

특 집

남북고위급회담과 남북 경험
회담 여건과 성사를 위한 분위기 조성 과제 • 정창현10
고위급회담 전략과 접근 자세 • 손기웅16
경험 활성화 의제와 경험 전망 • 동용승22

경험정보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II): 노무 관리 • 황동언28

논 단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 전략과 활성화 과제 • 조봉현38
북한 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적 추진 전략 • 윤덕룡51
해외 건설 시장에서 북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 • 허경신67

북한경제

최근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동향과 전망:
나진 · 선봉경제특구를 중심으로 • 임을출82

독자기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제언 • 이종국90

자 료

중소기업의 유희 설비 대북 이전 수요 설문 조사99

통 권 제51호
등록번호 라-6925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9년 3월 10일
발 행 인 김중웅
편 집 인 정순환
편집위원 김정균 유병규
김선덕 김희성
박태일 황동언
편집주간 홍순직
제작주간 심재철
편집고열 정은숙
발 행 처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새종로 178
대표전화 (02)724-4114
F A X (02)730-1770
인 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636-0555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북한의 대남 자세 변화를 촉구하며

치 근 북한이 對남한 자세에 일련의 유화적인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이 올 하반기에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제의하였고, 同제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이산가족 문제 등 우리의 관심 분야를 주요 의제로 채택한 점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변화는 최근 미국과 일본의 대북 강경 기류에 따른 남한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한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포용 정책과 당국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 등에 따른 결과로 평가된다. 물론 북한은 우리측의 조건없는 제의와는 달리 「국가보안법」 철폐와 외세와의 합동 군사 훈련 중지 등의 선행 조건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여부는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의 추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3월호 포커스에서는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 기회와 기대'라는 주제로, 금년 들어 보다 전향적이고 장기·포괄적인 접근 전략에서 제시된 대북 일괄타결론의 여건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았다. 또한 특집에서는 '남북고위급회담과 남북 경협'을 주제로 同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 조성 과제와 함께, 고위급회담 전략과 접근 자세, 그리고 경협 활성화 위해 다루어야 할 주요 의제와 경협 전망 등을 분석하였다.

논단에서는 소규모 시범적 교역 중심의 남북 경협을 대규모 투자 중심의 본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경협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 전략과 활성화 과제'와 '북한 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적 추진 전략'을 다루었다. 또한 '해외 건설 시장에서 북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서는 경협 확대, 특히 북한 인력의 해외 시장 동반 진출 과정에서 맞부딪치게 될 북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무적인 전략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밖에 북한 경제 코너에서는 최근 나진·선봉지대 내에 만연되고 있는 시장 경제 분위기의 실상과 전망을 현장감있게 소개했으며, 독자 기고에서는 고위급회담에서 제기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있어서의 한계점과 극복 방안을 수록했다. 이 두 편의 글은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당국자회담 재개 및 대북 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의 성공적 진행과 상호주의 원칙의 신축적 적용이라는 정부 방침에 비추어, 지금은 최근 본격화되기 시작한 남북 경협의 활성화와 한반도 관련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남북고위급정치회담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북한은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잘 인식하여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한 공존공영을 위한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빠른 시일내 조건없는 남북한 대화에 참석하기를 촉구한다.

1999년 3월
편집자